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이번주부터 수요성경공부재개로 인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
송됩니다. 목요일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수요성경공부

수요성경공부가 교회 친교실에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서라도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4. 청소년부 헌금

청소년부 예배 때 따로 헌금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교회 오서
서 본당에 마련된 헌금함에 아이들과 함께 헌금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1/14)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률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47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3:1-6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월 28일	2월 4일
유영환	최빅토리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11) 지혜를 찾아서

본문 : 눅2:41-60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키가 자라감에 따라 지혜도 자라고 사랑스러워지더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통 어린이 주일에 자주 인용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간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로 시작됩니다.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도 하룻길을 가다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번째로 묵상해 볼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어버린 줄 몰랐다고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옆에 있을꺼라 생각하고 하룻길이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꺼라 생각하지만 잃어버리고 없는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실로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다른 말로하면 성실,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곧 행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2,000년전 헬라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남자들은 대부분 광장에 모여서 철학적 토론을 벌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고 남들보다 박식한 자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른들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 지혜가 남다르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지혜가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참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두번째로 쓴 편지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단어배열인데, 당시 시대 속에서 헬라사람들은 가르치고 행하지 않았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행하시고 가르치신 지혜였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짜 사람을 확증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으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저가 내안에 내가 저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포도나무의 가치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가치가 갑자기 살구나무의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